1,2,3 RUTC 응답 25 : 벧엘에서 완성되는 응답 25(창35:1-5) 2/19/2023

지난 주일과 수요일 메시지를 통해 야곱이 체험한 응답 25의 단계 2가지를 생각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첫째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가 도망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주신 응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의 축복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실 것인지를 모른 것이다. 부모가 이것을 못 심어준 것이다(언약 전달의 실패)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 지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자존심).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바꿀만큼 나를 존귀히 여기신 것이다(자긍심). 이제는 아무 것도 아닌 자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자부심).

다 양보하고, 다 뺏겨도 상관없다. 받을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삶의 체질이 안 된 것이다. 머리로 안 것이다. 삶은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결국 얍복강 가에 홀로 남아 깊은 기도를 하다가(호12:4-5),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던 상처들이 치유된 것이다. 자기 안에 평생 사단의 통로가 되었던 부분들이다. 세가지가 치유되었다(마음 치유, 생각 지유, 관계 치유).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는 것이다.

본문은 응답 25를 위한 세 번째 단계이다. 이 야곱을 완전히 회복시켜 자신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만큼의 정복자, 승리자로 세우신 것이다.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 회복하고, 나의 숨겨진 상처 치유 받고, 이제는 나 같은 자, 세상 살릴 자로 서게 하시는 시간이다.

1. 어떤 일이 찾아 왔는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가나안 족속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한다.

 이들을 이기는 비밀이 없으면 이유없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게 되어 있다. 사단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1) 첫 인생 아담을 무너뜨리고, 계속 인간을 타락과 고통과 어둠으로 이끌고 가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인간이다(에덴 동산).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창3:5)고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마귀 따라 가는 자로 만들어 버린 것 이다(요8:44). 자기도 모르게 욕심과 죄와 저주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다(불신자 상태 6가지의 운명)

2)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숨은 상처들을 파고 들어 계속 짓눌려 살게 만든다(행10:38)

① 나를 계속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 “트라우마”라고 한다. 거의 어쩔 수 없이, 무지해서, 억울하게 당한 것들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도 한다(눅23:34).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이 전부 영적 피해자들이다.

②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문제들이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에서 온 상처를 겨우 치유받는 시간을 거쳤는데, 또다른 문제가 온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히위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자에게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 나는데, 대적할 힘이 없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겨우 생각한 방법이 또 인본주의다.

 아들들이 계락을 짜서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하고, 그 조건으로 그 족속들을 할례를 받게 만든다.

 그 할례의 고통이 낫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들을 먼저 친 것이다. 이제는 치명적인 전쟁이 된 것이다.

2.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가지다(1절). 문제,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결하고 승리하는 훈련해야 한다.

1) 벧엘로 올라가라는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날에 찾아 오셔서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다.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다(창28:13). 어떤 대적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정복자, 승리자의 삶을 약속하셨다.

2)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①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하나님을 모르든지, 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무엇으로 내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우상이다(형상, 부적, 자기 신념, 돈, 명예, 탐심)

 4절에 온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보니 엄청난 우상들이 쏟아져 나왔다(이방 신상, 금 귀고리등)

②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절대 해답), 하나님 나라(절대 배경과 미션), 성령의 능력(절대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3)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이다. 예배와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문제 속에서 두려움, 분노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그것이 믿음)
 참된 예배와 기도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시편 50:14-15이다.

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그리스도는 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날 붙잡아 오신 분이다.

 환경, 현실, 마귀, 내 수준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 보라는 것이다.

②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문제 같지만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오는 시간이다.

 문제로 변장해 온 것이다. 그 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라는 것이다(렘33:3).

③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다. 네게 증거를 주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3.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5절). 이것이 응답 25의 결론인 승리자의 삶이다.

1)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고 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팍하게도, 부드럽게도, 나를 돕는 자로 만들 수도 있다.

2)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짜 대적인 사단을 이렇게 무너뜨리신다(눅10:19, 롬16:20, 계21:7)

3) 이후에 야곱은 가나안의 영적 주인이 되고, 가나안을 살리는 자가 된다.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살리고, 3시대 살리고, 237과 오천종족 살리는 자로 선다(70인 제자).

결론-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상처투성이 야곱이 평생 체험하고 누린 응답25가 각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한다.